

## 광주비엔날레재단 “시민은 몰라도 돼”

### 이사회 비공개·주제선정 밀실결정 감사 사각지대...광주시 입김만 커져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이 이사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밀실운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가질만큼 세계적 미술이벤트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가 광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돼가고 있다. <감사할 수 없는 공룡을 키웠다> 재단은 지난 23일 ‘124차 이사회’를 열고 2011년 결산과 2012년 예산을

확정했다. 문제는 재단 출범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사회를 공개했던 재단이 박광태 전 이사장, 이용우(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당시 상임부이사장 체제가 갖춰진 지난 2008년 6월 10일 ‘107차 이사회’ 이후 이사회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한 한 이사는 “가장 중요한 결산도 총액만 공개해

세부운영과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신경이 가짜박사 파문을 겪으면서 재단의 투명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그에 따라 조직까지 개편했는데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도 현저히 위축됐다. 재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재단은 감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많게는 한 해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지난 16년 동안 재단은 감사원 감사 1차례, 광주시 감사 3차례만을 받았다.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도 현저히 위축됐다. 재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재단은 감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많게는 한 해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지난 16년 동안 재단은 감사원 감사 1차례, 광주시 감사 3차례만을 받았다.



방북중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26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시신에 조문한 뒤 상주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감사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므로 광주시가 감사하라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문광부 산하기관에 할 수 없다고 받을 뻔하기 때문이다. <주제선정도 시민 배제=비엔날레의 비밀주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난 16년 동안 광주비엔날레를 묵묵히 지켜본 광주 시민이다. 비엔날레가 광주 정서를 얼마나 담아내고, 지역 작가들의 소외 문제 등을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수용하고 있는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엔날레의 주제 선정도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철저히 시민참여가 배

제됐다. 내년 비엔날레 주제로 정해진 ‘라운드 테이블’도 어떤 동기로 무슨 의미를 담기 위해 정해진 것인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 또 비엔날레 주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토론 자체는 새로운 미학이 탄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의 간섭만 더욱 커졌다> 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광주시의 간섭만 더욱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부 직원 등은 광주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많고 있는 등 재단의 모든 예산은 광주시가 쥐고 있다. 이사 선임과 운영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등 모든 재단 계약 직원들의 인사와 광주시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적이었던 재단 팀장직마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계약직으로 전환해 광주시의 입김은 더욱 강해졌다. 현재 재단 팀장 4명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반 년째 계약직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첫 감사를 통해 “재단을 민영화할 것”을 광주시에게 권고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예산과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 이사회를 공개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며, 일부 이사가 반대해 이사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알림

## SMILE EXPO 2012

### 다이어트·성형... 팜메디컬 박람회



광주일보와 메디코퍼레이션(주)이 공동주최하는 팜메디컬 박람회인 SMILE EXPO 2012는 Design your smil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미소를 함께하며 에너지를 나누는 활기차고 새로운 문화축제입니다. SMILE EXPO 2012에는 다이어트, 성형, 피부, 시력교정, 안티에이징 등의 브랜드 클리닉과 뷰티 및 헬스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고객들과 실질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 클리닉과 업체들은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성장방향과 그 동력을 얻고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경험 할 것입니다. 또한 박람회의 고객 친화적인 활동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박람회 참가 효과와 여러 경영지표의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광주일보, 메디코퍼레이션(주)
- 주관: 스미일엑스포사무국
- 기간: 2012. 05. 11(금)~13(일) / 3일간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가업종: 다이어트, 성형, 피부, 시력교정, 안티에이징 및 헬스와 뷰티관련 업종
- 부대행사: 스미일어워드, 건강강좌, 경품(승용차)행사 등
- 문의: 062)451-3300 Fax 062)351-2279 이메일 help@smileexpo.co.kr
- 홈페이지: smileexpo.co.kr

## 이희호·현정은 귀환 “순수 조문...복측 메시지 없어”

이희호 여사 측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별도 면담은 없었으며 “순수 조문이었다”고 말했다. 복측의 특별한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얘기가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 여사와 복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와 현 회장 등 조문단 일행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1박2일간의 조문 방북을 마치고 이날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며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세 분의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윤 사무총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부위원장이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문단은 이날 오전 김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만수대의사당에서 면담을 가졌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며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세 분의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윤 사무총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측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별도 면담은 없었으며 “순수 조문이었다”고 말했다. 복측의 특별한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얘기가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 여사와 복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와 현 회장 등 조문단 일행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1박2일간의 조문 방북을 마치고 이날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며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세 분의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윤 사무총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 강진청자문화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 최우수
- 함평나비 축제
- 우수
- 광주충장축제
- 담양대나무축제
- 진도바닷길축제

강진청자문화제가 201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됐다. 또, 함평나비축제와 광주7080충장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도 우수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강진청자문화제를 2011년도에 이어 2012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

했다. 문광부는 이와 함께 함평나비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광주7080충장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 그리고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를 우수축제로 각각 발표했다. 유망축제로는 광주김치대축제와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순창장류축제, 영암왕인문화제 등이 지정됐다. 문광부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며,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대표 축제에는 8억 원, 최우수

축제에는 3억 원씩이 지원된다. 또 우수 축제에는 1억5000만원, 유망 축제에는 4000만원씩이 지원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 완도 2012 해맞이 축제

## 2012 임진년의 시작, 완도

201개의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中心 시선이 머무는 모든곳이 작품인 천혜의 자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와 해산물.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완도가 선물합니다. 2012, 임진년 새해 여러분을 완도로 초대합니다.

일시 : 2012년 1월1일(일요일) 06:00  
장소 : 다도해 일출공원(완도타워 일원)  
행사 : 일출기원제 '희망의 북소리', 일출감상, 신년덕담, 소망 풍선날리기 등

완도군 www.wando.go.kr / 완도군 문화관광 http://tour.wando.go.kr